범어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기억상자' 개막

3월 1일, 1층 중정서 개막식
범어사의 독립운동 참여 조명
"독립운동가들, 보살행 실천"
태극기 만들기 등 체험도 마련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한 참석내빈이 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를 관람하고 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이 3월 1일 박물관 1층 중정에서 3·1절 106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를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어사의 독립운동 참여를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막식은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함께 3·1절 106주년 기념식 후 성보박물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은 전시 소개와 함께 관장 정오 스님의 환영사,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관장의 기념사가 이어졌으며, 테너 김준연과 소프라노 박현진이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특별 공연을 펼쳐 깊은 울림을 전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환영사에서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이라 한다. 독립운동가들은 바로 이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이며,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며 "범어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실천해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곤 관장은 기념사에서 "범어사의 만세운동은 단순한 독립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를 향한 시민혁명의 시작"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범어사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범어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진 역사적 연결고리를 더 많은 국민이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 후 참석 내빈들은 2층 기획전시관으로 이동해 전시를 관람했다. 1부 '범어사와 3.1운동'에서는 범어사의 근대교육기관 역할과 독립운동에 기여한 불교 지도자들의 활동이 조명됐다. 1919년 부산 동래장터에서 시작된 범어사 승려들의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과정이 사진과 문서 자료를 통해 전시됐다. 특히, 백용성 스님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자료, 한용운 스님의 불교계 독립운동 관련 서신, 오성월 스님의 교육 활동과 독립자금 조달 기록 등이 공개돼 불교계의 독립운동 기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2부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에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과정을 소개했다. 전시에서는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과 직면한 도전들을 살펴볼 수 있다.

3부 '임시정부에서 정부로'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역사적 계승을 다뤘다. 특히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정부로서의 의미를 되새기며,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와 함께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는 체험, 태극기 만들기 활동, 그리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퀴즈 풀이 등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운동의 흐름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복지 등기사업' 후원

2월 26일, 영도구청서 전달식
"지역사회에 도움이 돼 감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이 부산 영도구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등기사업'에 후원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2월 26일 영도구청에서 '2025년 복지 등기사업' 사업비 전달식을 갖고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후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복지 등기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전달식에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과 김기재 영도구청장, 복지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혜도 스님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신도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복지 등기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실천해 주신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복지 등기사업'은 2021년 영도구에서 처음 시작된 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 대표적인 위기가구 발굴 사업이다. 영도구는 등기 우편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복지정책 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한마음선원 부산지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백현식 삼광사 신도회장 "초심으로 정진"

삼광사, 제23대 신도회장 취임식



백현식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이 삼광사 제23대 신임 신도회장〈사진〉으로 공식 취임했다.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는 3월 1일 경내 지관전에서 제23대 신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취임식에는 삼광사 주지 용암 스님을 비롯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김영 전 부산MBC 사장, 손영길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수석부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지 용암 스님은 백현식 신임 신도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백현식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삼광사 발전을 위해 정진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백 회장은 "천태종의 대표사찰 삼광사 신도회장을 맡게 되어 영광이며, 도용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덕수 스님, 종단의 원로대덕 스님, 그리고 주지 용암 스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과 주지 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삼광사와 불교 발전을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지 용암 스님은 "백현식 신임 신도회장님은 순수한 불자이자 기업인·체육인이며, 유기견 보호에도 앞장서는 자비 실천가"라고 소개하며 "삼광사가 불자들에게 편안한 수행공간이 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도명 스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

3월 3일, '비문전쟁' 출판기념회



경남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도명 스님의 신간 '비문전쟁' 출판기념회가 3월 3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에서 개최됐다.〈사진〉 책 '비문전쟁'은 일제가 변조한 비문을 추적해 원래의 내용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고대사의 숨겨진 조각을 찾아가는 역사서다.

이날 행사에는 여산 정여 대종사(금정총림 범어사 방장)를 비롯해 정오 스님(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법안 스님(성주사 주지), 혜진 스님(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 하림 스님(미타선원 회주), 정관 스님(원오사 주지) 및 민홍철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또한 이용종 식민사관청산 전국연대 대표, 이순일 식민사관청산 가야국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도명 스님은 "'비문전쟁'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식민사관의 영향과 임나일본부설의 허구를 바로잡기 위한 책"이라며 "왜곡되고 형클어진 우리의 고대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역사 해석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고대사의 진실을 밝히고 후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파라미타 2025년 정기총회 개최

2월 28일, 더파티 시청점서



"앞으로도 협회가 포교 역할을 강화하고 더욱 많은 학생이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라미타부산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 부산파라미타)가 2월 28일 더파티 부산시청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부산파라미타 총재 정오 스님, 부총재 도림 스님, 사무총장 해공 스님과 백명숙 협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부산파라미타 총재 정오 스님은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출범한 부산파라미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실을 다지며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숙 부산파라미타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발전된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총재스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이날 부산파라미타는 신임 사무총장으로 해공 스님을 임명했다. 이어 2024년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와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는 안건을 논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025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지도자 세대교체 및 공립학교 분회개설을 위한 홍보 및 지원 확대 △분회중심 소규모 활동 지원 및 청소년 불자 기본소양 자질 함양 △예불경진대회, 붓다볼 명상, 포교 활동 활성화 등이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제42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5년 4월 5일~5월 24일
매주 토요일 (8주간)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교재비 별도
문 의 : 031-470-3200/319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